

모여라~ 어린이날! 자연과 놀아요!

1.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방법

■ 대상자 : 관내 소외계층 어린이

■ 대상지 : 상주해수욕장일원 및 상주내 유람선

■ 준비물

 참여자 : 간편한 복장

 안내자 : 카메라, 안내책자, 교보재, 구급약, 체험놀이 시 필요한 준비물 등

■ 운영일자 : 매년 5. 05.

■ 소요시간 : 6시간이상

■ 운영코스 : 사랑의 유람선 - 사무소 2층 회의실 - 상주해수욕장 - 회의실

■ 유람선, 상주해수욕장의 특성 및 편의시설

- 상주해수욕장은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람선 선착장은 상주해수욕장의 왼편 끝에 위치하고 있다.
- 상주해수욕장은 총길이 약 2km에 백사장의 넓이가 평균 50m이며 입장료는 무료이고 송림과 백사장이 아름다운 해수욕장이다. 유람선은 약 500명이 승선할 수 있는 크기에 관람료가 있으며 약 1시간 30분 코스로 진행 된다.
- 상주해수욕장은 남해를 대표하는 해수욕장인 만큼 깨끗한 화장실과 넓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고 주변에 매점과 음식점이 즐비 한다. 유람선 내부는 1층은 음식점, 2층은 관람석, 3층은 오픈된 관람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다.

■ 해설가 주의사항

• 오늘의 주인공은 탐방객

- 주인공인 탐방객이 자연을 직접 느끼고 참여하도록 최대한 도와줍니다.
- 궁극적으로 해설가가 아닌 탐방객이 자연과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역사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해설로 왜곡되지 않은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 탐방객이 올바른 역사를 이해하도록 최대한 도와줍니다.

• 탐방객에 맞춘 맞춤형 해설

- 참여자의 연령과 관심의 정도에 따른 맞춤형 해설을 합니다.
- “칭찬을 하면 할수록 좋다.”
- 어린이들이 발견하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 “정말, 굉장해!”, “대단한 질문이야!” 하면서 자연에 대한 발견과 질문에 대하여 탐방객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 체험을 위주로 한다.

 모든 해설은 항상 체험 후에 합니다.

- **해설 전 모니터링은 필수**

자연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해설 전에는 사전 모니터링과 관찰을 하면서 해설 계획을 매번 새로이 세웁니다.

- **올바른 역사를 알려주도록 정확한 지식을 전달한다.**

왜곡되지 않은 역사를 역사의 현장에서 정확하게 전달해 줌으로써 올바른 역사·문화체 형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재미있고 즐겁게 진행 한다.**

해설자가 즐겁고 재미있어야 탐방객도 즐거워합니다.

■ 탐방안내 방식

-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동적인 체험과 정적인 체험을 중간 중간 섞어가면서 리듬을 가지고 실시합니다.
- 이동하면서 안내를 할 때 장소에서의 설명이 5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 설명이 길어질 경우 조금씩 움직이면서 하면 좋습니다.
- 앉을 수 있는 장소일지라도 10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 참가자들이 지루함을 느끼면 전달효과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 탐방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질문과 응답식으로 진행하면서 대화로 풀어나갑니다.
- 질문은 모두가 답을 할 수 있도록 약간의 시간을 줍니다.
-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시기별, 학년별, 대상자별로 설명이 난이도와 체험의 대상, 방법을 달리 선택합니다.
- 자연해설 중 자연과의 교감을 위한 시간은 꼭 갖도록 합니다.
- 집중시킬 수 있는 소리도구를 준비합니다.
- 이동할 때 해설가는 아이들보다 앞서서 가고 보조진행자는 뒤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킵니다.

2. 해설프로그램진행(시나리오)

○ 인사나누기 및 프로그램 소개(유람선 선착장 앞)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등(서로 인사나누기)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네 맞아요. 어린이날이죠? 바로 여러분을 위한 날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날만큼 재미있고 즐거운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오늘의 일정은 유람선을 타고 한려해상바다의 멋진 풍경들을 감상한 후,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푸른 숲과 은빛 고운 백사장이 있는 저기 보이는 상주해수욕장에서 다양한 체험놀이와 만들기를 할 예정이에요.

오늘 하루 그럼 맘껏 즐겨봅시다!

자~ 먼저 예쁜 기념티셔츠를 나눠줄게요. 그리고 유람선을 타러가요~~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와 이름표를 나눠줘 입은 다음 유람선에 차례로 승선한다.)

○ 유람선(2층 내부)

유람선과 함께 둘러볼 섬들은 총 14개로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가 2개이고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가 12개입니다. 그 외 해안선의 절경을 감상하게 될 겁니다. 코스는 여기 상주해수욕장을 떠나 미조면 앞바다 섬을 둘러보고 다시 상주면의 해안선 절경을 본 후 상주해수욕장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배가 출발하면 아이들을 전경이 잘 보이는 창가로 유도한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경남에서 최남단에 위치한 유인도가 보입니다. 조금 전 유인도가 뭐라 그랬죠? 맞아요. 사람이 사는 섬이라 그랬죠. 섬 이름은 갈도입니다.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 하루에 5~6시간씩 자가발전기로 공급하고 있고 물이 없는 섬이라 비가 올 때마다 모아서 사용합니다. 목욕은 거의 꿈도 못 꾸는 데요. 그래도 목욕할 수 있는 날이 있답니다. 그때가 언제 일까요? 하늘이 정해준 날로 바로 비가 오는 날입니다. 그날 이면 모두 비누를 하나씩 들고 나가서 야외에서 목욕을 합니다.

(그 외 스프링스바위, 해골바위, 쌍용굴 등 설명)

왼편에 유인도가 보입니다. 현재 10가구 정도가 살고 있으며 가장 작은 학교도 있지만 현재는 폐교된 상태입니다. 폐교 전에 학생은 4학년, 6학년 각 1명씩 선생님 1명, 집사 1명, 서무 1명 있는 조그만 학교였습니다. 그 뒤로 보이는 곳이 미조항입니다. 어업전진기지로 배가 쉬어가거나 잡은 물고기를 팔거나 하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맛있는 멀치와 갈치로 유명한 곳입니다.

(배는 다시 돌아 상주해수욕장으로 가는 중간 용굴이 있는 해안가로 접근)

정면으로 보이는 것이 용이 살았다는 전설을 담고 있는 용굴입니다. 총길이 120m에 높이 5~7m로 큰 동굴이며 반대편으로 뚫려 있는 해저터널입니다. 그리고 용굴

위쪽의 숲에는 야생흑염소가 사는데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숲에 풀어 놓고 길렀지만 현재는 기르는 사람이 없어 야생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흑염소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자세히 찾아보세요. 이제 이곳을 빠져나가면 다시 상주해수욕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외 용왕바위, 거북바위, 비룡계곡 등 설명해줌)

이제 유람선 관람 코스가 끝나갑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자연의 조각품들을 감상한 소감이 어때요? 멋진 경관은 자연의 위대한 힘이자 우리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선물을 주는 자연에게 우리는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보답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힘들 수도 있지만 아주 간단해요. 그 방법은 뭘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자연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것은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겠죠?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자연의 멋진 선물들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배가 도착하면 이제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기다리는 곳으로 출발합니다. 기대하세요!

○ 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 소개(2층 회의실 - PPT교육)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국립공원이 친해질 시간을 함께할 ○○○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우리나라 국립공원과 여기 남해의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대해 간략히 배우실거예요. 그럼 화면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이란 어떤 곳일까요? 국립공원은... 따라 읽으세요. 경치가 아름다운 곳! 야생 동·식물의 많이 사는 곳! 귀중한 문화재와 역사를 간직한 곳! 많은 사람들이 찾는 휴식 공간! 이런 좋은 곳을 나라에서 지정하고 보호하여 먼 미래의 후손에게도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하기위해 만든 공원이 국립공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국립공원이 된 곳은 어디 일까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는 지리산입니다. 1967년 12월 29일 제 1호로 지정 되었고 여기 한려해상국립공원은 1968년 12월 31일 4번째로 지정 되었어요. 그리고 저기 옆 마을 전라남도에 있는 월출산이 마지막으로 지정되어 우리나라는 20개의 국립공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정만 한다고 보호가 되진 않겠죠? 그럼 저와 같은 자연의 지킴이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아요. 첫 사진은 무엇을 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누군가가 버리고 간 쓰레기를 직원들이 청소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줍지 않으면 아마 자연은 쓰레기로 뒤 덮히게 될지 몰라요. 세월이 흐르면 쓰레기도 썩어 없어지겠지만 그 세월이 무려 몇 백년이 걸린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국립공원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요즘 농촌은 농사일을 해야 하는데 젊고 힘 센 사람들이 없어서 힘들데요. 그래서 직원들이 농사철이 되면 도와준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여러분과 같은 어린 친구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직원들이 교육하는 모습이에요. 네 번째 사진은 아

픈 동물을 치료해 주고 쉬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의 동물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너구리죠? 너구리는 잔머리를 잘 쓰는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진의 모습은 꼭 죽은 것 같지만 죽은 척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너구리가 다친 것을 직원들이 치료해 주었는데 기운을 차리자 죽은 척하고 있다가 이 사진을 찍은 후 후다닥 도망갔답니다. 그 외에도 자연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 없나 감시도 하고 사람들에게 의해 파괴된 곳은 직접 복원도하고 어떤 동·식물이 있나 조사도 합니다. 어때요. 국립공원 직원들을 자연의 지킴이란 호칭으로 부를 만 한가요? 그러나 자연을 지키려면 직원들만의 힘으로도 부족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같이 지켜주셔야 자연은 영원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꼭 지켜 주실거죠? 이제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살펴볼게요. 여러분 금산이 어디 있죠? 네 바로 저기 뒤에 있는 산이 금산이죠?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대표할만한 자연을 가진 금산에는 어떤 멋진 자연이 있는지 보아요.

(상사암, 보리암등 사진에 나와 있는 금산 38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

멋진 바위를 만나 봤죠? 그럼 이제 금산에는 어떤 동물과 나무 친구들이 사는 지 살펴봅시다.

(청설모와 다람쥐 사진)

둘은 비슷하게 생겼죠? 그럼 어느 쪽이 다람쥐일까요? 네 맞아요. 그럼 다람쥐가 아닌 동물의 이름은? 네 청설모입니다. 다람쥐 보다는 청설모를 많이 봤을 거예요. 비슷한 느낌이지만 둘의 차이는 확실하죠? 차이를 말해볼 친구?

(고라니와 노루 사진)

이 동물들도 비슷하게 생겼죠? 그럼 어느 쪽이 노루일까요? 네 맞아요. 노루가 아닌 동물은 고라니라는 동물이에요. 둘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노루는 뿔이 있고 털 색깔도 좀더 연하며 엉덩이 부분의 털 색깔도 틀립니다.

(수달 사진)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수달입니다. 과거 하천개발로 인해 그 수가 급격히 줄어 현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친구들의 예쁜 새소리를 들어 보세요.

(까막딱다구리, 휘파람새, 소쩍새 새소리를 들려준다.)

동물친구들을 만나보았으니 이제 금산의 예쁜 야생화사진을 감상해 보세요.

(씀바귀, 골무꽃, 각시붓꽃 등 사진을 보여준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이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산에 가시면 꼭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 테니 따라 읽어 주세요. 그리고 꼭 지켜 주셔야 합니다. 산에서는 시끄럽게 떠들지 않습니다! 식물을 함부로 꺾거나 뽑으면 않습니다! 동물이나 곤충을 잡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만 잘 지켜준다면 자연의 동·식물 친구들은 언제나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게 되는 것 입니다

○ 만들기 체험(양초 만들기, 치자로 손수건 염색하기 - 상주해수욕장 송림내)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연물을 이용하여 체험놀이를 진행할 자연환경 안내원 000입니다. 전 시간에 무엇을 배우고 왔나요?? (대답) 네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대해 배웠죠. 무슨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대답) 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한 내용들을 모아서 말하면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상주해수욕장에 나와 있는데요. 해수욕장 앞에 나무들이 많죠!! (대답) 네 돼 해수욕장 앞에 나무들이 많이 있을까요? (대답) 이 나무들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나무들을 방풍림(防風林)이라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조개껍데기를 이용한 양초 만들기와 치자로 손수건에 천연염색을 하는 체험놀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양초를 언제 많이 사용하나요? (대답) TV에서 보며 생일이라든지, 특별한 날에 케이크에 꽂아서 또는 저녁식사를 할 때는 은은한 분위기를 위해 양초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집안의 잡냄새 특히 음식냄새를 없애기 위해 양초 사용하기도 하고 아로마 향을 넣은 양초는 사람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정신적 질병도 치료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양초는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테이블 위에 양초의 원료인 파라핀과 염색액 외에 종이컵,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컵, 심지, 버너, 주전자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개껍데기를 이용한 양초 만들기라고 말했는데 조개껍데기가 없네요. 조개껍데기는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백사장에서 주워오면 됩니다. 지금 나눠주는 플라스틱 컵에 조개껍데기를 담아오세요. (백사장에서 조개껍데기를 주워온다...)

다 주운 친구들은 테이블 앞으로 모이세요. 여러 가지의 조개껍데기를 주워왔네요. 이제 제가 양초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버너와 주전자를 이용하여 잘게 부순 파라핀을 넣고 약한 불로 천천히 녹입니다. 다 녹인 파라핀을 종이컵에 부은 다음 염색액을 한 방울 넣고 염색액이 잘 섞이도록 저어줍니다. 조개껍데기를 담아 준비된 플라스틱 첩에 심지를 반듯하게 세우고 종이컵에 있는 염색된 파라핀을 천천히 붓고 굳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조개껍데기를 넣은 양초가 완성됩니다.

양초 만드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잘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할 양초 만들기는 열을 가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위험을 있으니 각자 종이컵에 나눠줄 파라핀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럼 옆에 친구와 장난치면 될까요? 안될까요? (대답) 네 안되겠죠. 그리고 플라스틱 컵에 심지를 세울 때 반듯이 세워서 넣어 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양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자연놀이(상주해수욕장 해변)

안녕하세요?

저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국립공원이 어떤 곳인지도 알아보고 유람선도 타고 염색체험이랑 양초만들기 체험 재 있었나요? (네에~)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어디에 있다고 했나요? (남해금산이요.)

네에 맞아요. 남해금산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하고 있어요. 금산은 화강암으로 된 아름다운 기암괴석들이 멋지답니다.

화강암은 풍화작용으로 바람에 의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잘게 부서지고 쪼개지게 되는 데요. 풍화토와 섞여 아주 고운 입자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상주해수욕장은 남해금산에서 잘게 부서진 풍화토가 강을 따라 쓸려 내려와 아름다운 부채모양의 해수욕장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찾은 해수욕장은 자연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작품이랍니다. 해수욕장에 오니까 어때요?

물속에 들어가고 싶죠? 네에...

이제 오늘 마지막 체험시간인데요, 염색물들인 손수건과 나만의 양초가 만들어지는 동안 우리 모두 다함께 신나게 놀아볼까요? (네에~~~!)

선생님이 준비한 프로그램은 자연놀이와 나에게 편지쓰기예요. 한 번쯤 다 해 봤을 텐 데요, 해수욕장에서 하기에 정말 좋은 놀이인 것 같아요. 모래성 지키기 놀이이랑 꼬리잡기 놀이를 하고 나서 사무실로 이동해 나에게 편지쓰기를 하고 마칠 거예요. 그럼 먼저 해수욕장에서 할 수 있는 자연놀이 체험을 할게요. 모래밭에서 하기에 정말 좋은 꼬리잡기 놀이부터 시작할게요.

주의사항

1. 신발과 양말은 지정된 장소에 벗어 둔다.
2.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공간이므로 놀이공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개인적인 행동은 삼가 한다.
4. 해수욕장 모래사장 유리파편에 찔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첫 번째 - 꼬리잡기놀이체험

선생님 설명 잘 들으세요. 반달이 팀과 꼬미 팀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할게요.

반달이 팀과 꼬미팀으로 나누어 두 줄로 서세요.

반달이 팀과 꼬미팀 맨 앞에 선 사람이 상대방팀 꼬리에 있는 친구를 잡으면 놀이가 끝나게 됩니다. 꼬리를 잡을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자기팀 줄이 끊어지면 지

게 됩니다. 자기팀의 협동심이 아주 중요하겠죠. 맨 앞에 선 친구만 열심히 달려도 안 되고 꼬리에 선 친구가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꼬리가 잡히게 되니 모두 열심히 해야 되는 놀이예요. 다함께 호흡을 맞춰 열심히 해야 이 놀이는 승리할 수 있답니다. 이긴 팀에겐 선물이 있어요.

다들 힘을 모아서 열심히 놀이에 참여 해야겠죠.

자~ 그럼 상대팀 꼬리를 향해 출발 해 볼까요? 출발!

상대방팀 꼬리를 잡으러 뛰어 다닌다. 꼬리가 잡히면 놀이는 끝난다.

재밌나요? 한 번 더 할까요? (네에..)

그럼 3판2승제로 할게요. 3번 놀이를 해서 2번 이기는 팀이 승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에)

그럼 시작합니다. 자 ! 출발

(놀이가 끝나면 준비한 기념품을 이긴 팀에게 전달한다.)

이 놀이는 한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다 함께 힘을 모아 열심히 해야 이길 수가 있어요. 대장은 꼬리 친구가 도망칠 수 있도록 잘 유도해야 되고 중간에 선 친구들은 앞 친구를 놓치지 않고 잘 뛰어야 줄이 끊어지지 않겠죠. 오늘 놀이를 열심히 한 것처럼 친구들 집으로 돌아가서도 서로 싸우지 말고 언니는 언니로서 동생은 동생으로서 잘 대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네에...) 서로 아끼고 보살펴 주면서 언니 동생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 모래성 지키기 놀이체험

(먼저 스트로우 끝에 삼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붙여 깃발을 만들어 모래성 개수만큼 준비한다.)

이번에 할 놀이는 모래성 지키기 놀이예요.

이 놀이도 다들 잘 알죠!

네에.. 그래도 선생님이 다시 한번 놀이 방법을 알려줄게요.

5섯 명씩 한 모둠으로 나누세요.

선생님이 준비한 깃발 보이죠!

이 깃발을 가운데에 세우고 모래성을 쌓아 올린다음 토닥토닥 두드려 줍니다. 그런 다음 맨 먼저 모래를 자기 앞으로 가져올 친구를 정합니다.

1번 친구가 모래를 두 손으로 조금씩 퍼 옵니다. 오른쪽으로 돌면서 한사람씩 모래를 가져옵니다. 맨 마지막에 깃발을 쓰러뜨리는 친구는 이제 놀이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4번을 하면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남는 친구가 놀이에서 이기게 됩니다.

다들 잘 알겠나요? (네에...)

모래성을 잘 지키는 친구에겐 선물이 준비 되어있어요. 마지막까지 누가 모래성을 지키게 되는지 시작해 볼까요? 자~ 시작!

모래성 지키기 놀이를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남은 친구에게 선물을 준다.)

모래성 지키기 놀이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놀이예요. 모래를 많이 가져오면
깃발이 쓰러질 수 있으니 조심조심 생각을 하면서 해야 하는 놀이죠. 다들 너무 잘
해서 선생님도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은 즐거웠나요? (네에..) 마지막까지 모
래성을 지켜서 선물을 받은 친구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도 있어요. 잘한 친구에
게 박수쳐 주면서 축하해 줄까요? 짹짹
다들 수고했어요. 해수욕장에 나왔으니 발에 물은 담가 봐야겠죠. 깊은 곳은 위험하
니까 무릎아래까지만 들어가도록 합니다.

즐거운 시간을 우리가 남길 건 사진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함께 기념사진 한 장
찍고 사무실로 이동할게요.

○ 나에게 편지쓰기와 마무리인사(사무소 2층 회의실)

- 나에게 편지쓰기 재료 나눠주기 -

오늘 야외활동 재밌었나요? (네에...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하루 선생님들 말을 잘 따라줘서 사고 없이 행사가 잘 끝난 것 같아요. 미래
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 있을지 한 번 궁금하지 않나요?
선생님이 나눠주는 종이에 글로 적어도 보고 그림으로 그려도 좋습니다.
오늘 체험한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적어도 되구요 그림으로 표현해도 됩
니다.
여러분이 자라서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상상해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한 번 적어보세요.

다 적었나요? 다 쓴 친구 중에 누가 한 번 발표해 볼 친구있나요?

2~3명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네에..오늘 체험 느낌을 정말 잘 적었네요... 발표한 친구를 위해서 박수쳐 줄까요!
다들 너무 잘 썼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행복은 무엇일까?
행복은 돈이 많다고 해서 명예를 가지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느낄 수 있는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행복을 느꼈나요? (네에..)
행복은 내 마음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오늘 하루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즐겁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은 슬프고 힘들지만 앞으로 희망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 기쁜 날 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행복은 여러분 마음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행복이라는 친구를 자꾸 불러 줘야 기뻐합니다. 그러면 행복을 느낄 수 있겠죠.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행복하세요!

(염색 손수건과 양초 주인을 찾아 나눠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눈다.)